

한화케미칼, 영업손실 1000억원

동양증권, 중국 석유화학 둔화로 ... 한화솔라원 대규모 영업적자

한화케미칼의 2011년 4/4분기 영업손실이 1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.

동양증권 황규원 연구원은 “2월23일 발표되는 한화케미칼의 2011년 4/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중국의 석유화학 경기 둔화에 따른 LDPE(Low-Density Polyethylene) 가격 약세와 한화솔라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로 3/4분기 828억원에서 급감할 것”이라고 2월14일 발표했다.

또 “한화케미칼의 연결 영업이익이 2012년 1/4분기에는 400억~500억원 흑자로 전환하지만 전년동기 2404억 원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이어 “2012년 상반기 한화케미칼의 주가는 3만~4만원 수준에서 움직일 것”이라며 “영업실적 모멘텀 약화에도 2011년 4/4분기 저점을 탈출했기 때문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2/14>